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Economytalk News

HOME 문화라이프 전시·영화 자동전송제외

실, 침, 골판지로 '시간·공간·존재' 풀어낸 대구 출신 베니스비엔날레 3인방

왕진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승인 2017.06.13 16:29

◆김완, 심향, 손파 작가 2017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서 작품 선보여◆

[이코노미톡뉴스=왕진오 기자] 1895년 세계 최초로 시작된 이래, 현재 미술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 현대미술 전시회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국의 휘트니 비엔날레, 브라질의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손꼽힌다.



▲ '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이 열린 팔라초 모라의 관람객'(사진=갤러리 팔조)

규모와 내용 면에서 전 세계 미술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술행사로 명성과 권위를 갖고 있다.

'Viva arte Viva(예술만세)'를 주제로 내세운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에는 한국을 비롯한 87개 국가관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이대형 예술 감독과 코디 최, 이완 작가가 '균형을 잡아주는 평행추'를 의미하는 '카운터밸런스(Counterbalance): 더 스톤 앤 더 마운틴(The Stone and the Mountain)'를 주제로 전시장을 꾸렸다.

국가관이 각국의 대표선수 격이라면 '퍼스널 스트럭처(Personal Structure)'는 세계 각국의 주목받는 작가를 선정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연령대를 지닌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시간, 공간 그리고 존재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특별전이다.

이 전시회는 주로 현존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최근 작품들과, 특정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됐거나 이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최근 작품을 선보인다.



▲ '(왼쪽부터) 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참여한 김중희 대표, 심향 작가, 손파 작가, 김완 작가.(사진=갤러리 팔초)

팔라초의 몇몇의 방은 한 명의 예술가의 발표를 위해 헌정됐고, 반면에 다른 방들은 프로젝트와 작품의 조합으로 제시한다. 강력한 진술은 각각의 전시 룸에 매우 특별한 성격을 부여한다.

The GAA Foundation의 전시회 'Personal Structures-open boards'는 유럽이 아닌 작품들과 대화를 나누는 유럽인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 준다.

더욱이 이 전시회는 관중이 그들의 일상주변을 향해 시간과 공간 내의 특정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으로서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의식적인 관계를 자극한다.

50여 개국 200여명의 아티스트 중에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완, 심향, 손파 작가의 약진이 눈길을 모았다.

김완, 심향, 손파 작가는, 서로 다른 매개체(실, 침, 골판지)와 표현방법으로 시간, 공간, 존재라는 주제에 대해 각자 개성 있는 표현을 하는 작가들이었으며, 세 작가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작품을 통한 메시지는 관객들의 다른 의식을 자극했고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초대된 많은 다른 작가들마저도 매우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갤러리 팔조 김종희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기획하고 프로모션 한 김완, 심향, 손파 작가의 작품은 이미 해외 아트페어에서 만난 아시아, 서양, 유럽인의 반응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며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서의 반응과 관심은 더욱 뜨거웠으며 국제적인 작가로 세계무대에서 활동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공개된 심향 작가의 작품'(사진=갤러리 팔조)

팔라초 모라 3층에서 개인전을 진행한 심향(Simhyang) 작가는 한지위에 다양한 실로 점과 선으로 연결해 몇 겹의 레이어를 만들어 나가는 '스타필드(Starfield)' 시리즈를 통해 쌓여져온 시간과 관계들을 자유롭고 불규칙하게 형상화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존재의 본질과 가치, 세상과 소통하는 공존과 치유의 공간으로 나타낸다.

'Starfield'는 존재마다의 가치와 이유, 존재에 대한 소중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빛은 어둠을 대비하지 않고서는 빛 날 수 없다는 관계성, 상실된 자존감의 회복을 의미하며, 상실과 불안의 이 시대에 던지는 긍정적인 메시지이다.



▲ '2017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선보인 손파 작가의 작품'(사진=갤러리 팔초)

팔라초 모라 1층에서 진행된 손파(Sohn Paa) 작가의 작품은 시대성이나 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시공간에 존재하는 나는 이미 사회성을 띄고 있다.

인간의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금속의 질감은 공포를 유발하지만, 그것을 통해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도 한다.

공포는 공포 밖에서 볼 때 느끼는 것이고 공포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면 이미 공포가 아니다. 하나의 정의는 하나가 아닌 양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양극은 서로 다르지 않음을 말한다.





▲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선보인 김완 작가의 작품'(사진=갤러리 팔초)

팔라초 벰보 1층에서 개인전을 진행한 김완(Kim Wan) 작가는 거친 종이를 칼질로 잘라서 만든 線의 단면에서 출발한다.

종이를 잘라 그 단면으로 바탕을 만드는 과정의 행위와, 그 선과 바탕면의 촉각적인 물질감을 통해 삶의 의지를 회화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의도가 잘 나타나도록 오랫동안 바탕면의 느낌에 천착해 왔다.

고단한 인간세계의 현실 속에서, 도피하지 않고 자신을 지탱해 줄 희망의 빛과 색이 되고,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선(線)으로 행위하고, 선(禪)적인 화면을 통해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론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추구하는 예술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이 진행된 팔라조 뱀보'.(사진=갤러리 팔조)

네덜란드 비영리재단인 글로벌아트페어재단(GAAF)과 유럽피안컬처센터(European Cultural Centre) 주최로 5월 13일부터 열린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의 특별전 '퍼스널 스트럭처(Personal Structure)'는 11월 26일까지 볼 수 있다.

왕진오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wangpd@economytalk.kr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